

3D 얼굴 스캔·K팝 유니버스...미래 디자인 체험 '흥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주말 풍경

흠 가진 과거 주방 기술·디자인 눈길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 아이들에 인기 친환경 디자인 접목 공간 관람객 발길

VR 레싱 체험도 즐기고, 메타버스 체험존에서 컬러링 스티커도 보이고, K팝 유니버스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개막 후 첫 주말을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은 가족 단위 관람객, 친구들과 전시장을 찾은 젊은층으로 붐볐다. 디자인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직접 체험을 하거나 이색적인 작품을 사진에 담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디자인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올해 주제인 'Meet Design'을 기술과 라이프, 문화, 비즈니스와 연계한 전시장은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공간들이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관에서는 기술과의 융합으로 진화하는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AI를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IoT홈가전 등 4차 산업과 접목된 미래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LG전자의 스마트 홈 가전이 과거 주방의 모습과 비교 전시된 공간들은 인상적이었다. 40~50대들은 향수를 떠올리는 반면 젊은층들은 기술과 디자인을 비교해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다.

이들 장면은 일본 디자인센터 대표인 하라 켄야가 '디자인의 디자인'에서 언급했던 말을 새삼 떠오르게 했다. "디자인은 단순히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의문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디자인이다. 사람이 살아 있어야 환경이다. 그것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시선 저편에 테크놀로지의 미래나 디자인의 미래가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한 전시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생활방식이 어떻게 디자인으로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코너들을 만나는 곳으로,



개막 후 첫 주말을 맞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시관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붐볐다. /최현배 기자 choi@

친환경 디자인을 접목한 공간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흥미로웠다.

특히 3D 얼굴 스캔으로 얼굴 모양, 사이즈와 굴곡 등 1221개의 얼굴 포인트를 인식해 데이터화 하는 'Facial Scan' 코너에는 다양한 연령층 여성들의 발길이 머물렀다. '사람들의 얼굴은 사이즈도 형태도 각각 다른데 왜 안경은 한가지 사이즈 뿐일까' 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전시관은 컬러링관이었다. 이곳에서는 K-팝을 비롯해, K-뷰티, K-푸드 등 문화와 관련된 다채로운 주제의 디자인과 조우한다. '만남과 관계'의 디자인을 K-컬처를 매개로 풀어낸 것. 특히 관람객 가운데는 K팝 유니버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여성들과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곳은 단연 플래지어의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 커다란 우유곽 모형과 도넛 모형물 그리고 사이사이에 놓인 빵 모양의 작은 쿠션 등은 관람에 지친 아이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선사했다. 빈백에 얹어 무한한 상상의 나라

를 퍼져나 디자인을 놓아처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비즈니스관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와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생각하게 했다.

'카나리아 대기질 측정기'는 독일 광산에서 광부들이 광산 내부 가스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귀족새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 광산에 들어갔던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 측정기 설명 문구를 꼼꼼히 읽는 중장년층들은 현대사와 접목된 새의 조형물을 통해 디자인의 무한 변신을 생각하는 듯했다.

한편 7일부터 9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3관에서 국제행사도 진행됐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학술행사는 개막포럼, 디자인포럼, 디자인 토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됐다. 특히 9일에는 나건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및 큐레이터를 비롯해 전·현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획자들이 디자인 토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미있는 공간이 흐르는 도시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열린다

12~24일, ACC 문화정보원 건축상 수상작 전시·체험 등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끄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건축이다. 건축은 문화와 예술이 집약된 종합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건축을 소재로 한 책과 다양한 TV 프로그램은 그러한 방증이다. 이와 맞물려 유서 깊은 국내의 건축물을 탐방하는 이들이 늘었다.

광주 건축의 협주소는 물론 미래를 가능하고 건축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는 공간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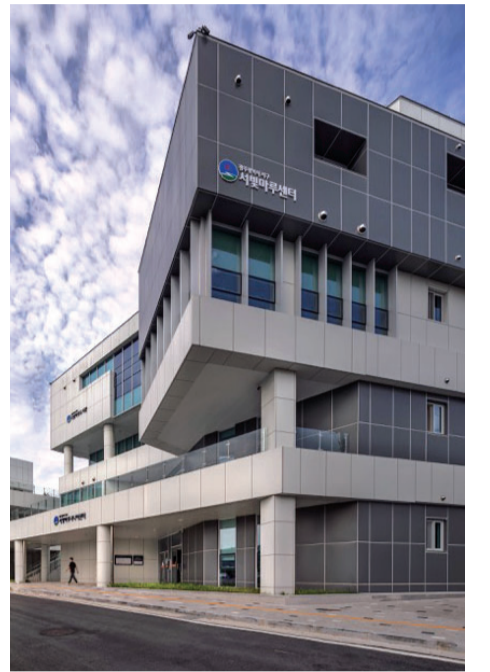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B3에서 열린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해마다 지역 건축인을 비롯해 시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가 모인 단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는 광주건축대전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한다.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이순미)가 개최하는 광주건축대전은 30여 년 지속된 광주시 미술대전의 역사를 이어 전국규모 건축전문포럼으로 독립한 지 6회째를 맞았으며 올해 주제는 '재미있는 공간이 흐르는 도시'.

건축도시문화제에서는 '2023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을 추대하고 제27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를 비롯해 제6회 광주건축대전 수상작 전시, 2023 아름다운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수상작, 사진공모전 수상작 등 다양한 작품과 모형을 만날 수 있다.

올해 27회 건축상 수상작은 부문별 ▲사회공공 최우수작 '서빛마루' (양병범), 우수작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정관성, 정명환), ▲주거 우수작 '제고공일' (허만수), ▲주거 최우수작 '희색' (조경빈) 등이 선정됐다.

제6회 건축대전 수상작은 부문별 ▲아이디



건축상 사회공공 부문 최우수작 '서빛마루' (양병범)

어 대상 '수변신호등' (이진용), 금상 '빛의 숲' (김의혁), 일반공모 ▲대상 '좋아요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백승엽), 최우수상 '노후화된 어선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센터' (이민성) 이 선정됐다.

이번 건축도시문화제에서는 건축도시시포 지업을 비롯해 건축도시포럼, 건축체험교실, 건축민원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2022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품전도 만날 수 있다. ▲주거 부문 '계림아이파크에스케이뷰 아파트', ▲비주거 부문 '금호시민문화관', ▲공공 부문 '전일빌딩 245'가 선정됐다.

한편 '2023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는 안태경 건축사(미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안 건축사는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2006년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로 하나된 '달빛동맹'



광주무용협회(왼쪽)와 대구국악협회가 공연을 펼치고 있는 장면.



<광주예술 제곡>

광주-대구예총 예술교류공연,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빛고을과 달구벌 양 도시가 예술교류공연으로 손을 맞잡는다.

광주예총(회장 임원식)과 대구예총(회장 이창환)이 '2023 광주-대구달빛동맹 예술교류공연'을 오는 13일(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연다.

두 지역 예술단체의 협연을 통해 상호 예술교류 활성화 및 연대감 조성, 영·호남 문화예술 네트워크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먼저 광주국악협회는 육자배기 구음(口音)에 독

무, 수건춤, 창작 부채춤을 접목한 '남도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며, 대구국악협회는 '경기민요'를 들려준다. 이어 광주무용협회는 광주로얄발레단이 무대에 올라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하는 발레스토리'를 보여주고, 대구무용협회는 인간 내부에 있는 마음의 형태를 동적으로 나타낸 공연 '지음'을 선보일 예정.

또 광주연극협회는 '무어극(無語劇)' 형식의 공연 '절규'를 통해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대구연극협회는 셰익스피어 희극을 현대 코미디화한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을 선보인다. 광주음악협회는 정

년무지선 단체 크림컴퍼니가 지역 간 연대의 노래를 올려 퍼뜨리며, 대구음악협회는 계명트럼펫 칸타빌레가 트럼펫 레퍼토리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광주연예협회의 조유정(트럼), 일브로 댄스팀 등이 펼치는 공연도 예정돼 있다. 대구연예협회는 가수 박수미, 장구팀 아랑이 연주하는 '달구벌을 노래하다'에 우리 신명을 담는다.

한편 '달빛동맹사업'은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경제, 문화 등 이채로운 분야에서 38개 과제(5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현배 기자 rubi@kwangju.co.kr

'GMAF 미디어아트 시민 공모전' 18~27일 접수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기념해 'GMAF 미디어아트 시민 공모전'이 개최된다.

광주시는 올해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기념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아트 창작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오후 4시)까지. 이번 공모전 주제는 '빛도 꿈을 꾸는가'이다.

응모 희망자는 2023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공식홈페이지 공모문(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품규격 확인)을 참조해 3분 이내 영상 콘텐츠 등을 이메일(artmo2mo@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시상금 및 상패가 수여된

다. 대상은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이며 수상작은 GMAF 미디어아트, ACC 미디어아트 등에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미디어아트 시민공모전 사업단 관계자는 "빛도 꿈을 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미디어아트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공모전을 계기로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물론 미디어아트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문의는 GMAF 미디어아트 시민공모전 사업단(070-7766-7668)으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